

【특집】

## 특집호 기획에 부쳐

조 은 수\*

이번 『철학사상』 41호는 <한국불교의 생태담론과 생태운동>이라는 주제로 6편의 논문을 모아 특집호로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논문들은 불광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가 지난 2011년 6월 4일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공동주최한 학술연찬회에서 발표된 논문들 중 일부입니다. 개발과 성장을 모토로 질주해온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 보다 환경과 생태 문제에 대해 전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학, 교육학, 철학 등 여러 다른 분야에서 불교와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학자들이 현대 한국 불교계의 생태 운동의 현황과 생태 담론을 이론과 실천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소개하고 그 이론적 건전성과 실천성을 점검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철학사상』지는 철학 고유의 주제 연구를 진작할 뿐만 아니라 인접 학문과의 학제간 대화를 촉진하는 것을 그 발간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 담론을 분석하는 것도 그 관심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생태학은 서구에서 시작한 학문 분과로 서구사회에서 생태계와 환경 보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이론적 모색의 과정에서 학자들은 동양의 사상과 종교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불교는 생태학적으로 의미있는 교리 체계를 가지며, 환경 친화적인 삶의 방식을 제창하는 것으로 주목을 받아, 이제는 환경학이나 생태학 분야에서 불교교리가 언급되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일

---

\*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철학사상연구소 소장.

이 되었습니다. 불교학 내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관심은 불교윤리학(Buddhist Ethics), 또는 참여불교(Engaged Buddhism)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연구 분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불교와 생태윤리와의 관련성이 서구사회에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최근 삼십년 서구 사회에서 일고 있는 불교에 대한 사회 전반적 관심과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사정 속에서 불교 생태학, 심층 생태학, 생태 심리학 등의 등 다양한 이름의 분과 학문들이 나타나 전문화되는 한편, 간학문적 접근법을 가지고 넓은 스펙트럼으로 접근하는 연구들도 등장하였습니다. 불교는 생태적인 종교일 뿐 만 아니라, 불교 교리 그 자체가 생태학 이론이라고 하는 주장까지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불교학자들이 현실 문제에 해결책을 내리기 위해 성급한 일반화를 내리려고 한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물론 불교는 생태 철학의 체계를 주장하기 위해 발생한 종교가 아니므로 논리적으로 정합적이고 정치한 하나의 통일된 이론을 제창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현대의 생태 위기에 여러 가지 유의미한 교리적 문화적 주장들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서구사회는 생태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동양 종교와 사상에서 찾고자 하는데 반해, 현대 아시아의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태 파괴와 환경오염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동양이라는 말의 애매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양적 가치가 동양 현대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공해가 심한 도시로 인도의 뭄바이나 델리 등이 꼽히고, 네팸의 카트만두나 태국의 방콕 그리고 중국의 대도시들도 마찬가지 사정입니다. 동양 종교와 사상 전통이 생태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조차 무색할 지경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이들 사회에서는 부의 획득과 근대화 달성이 자연의 보존이나 생태적 가치 보다 훨씬 더 상위의 가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반면 흔히 인간의 환경 정복과 자연 지배의 역사를 거론하고 비판할 때 표적이 되곤하는 서구 문명사회는 오

히려 자연 침해에 대한 반성과 통찰이 깊이 뿌리를 내려서 이제 사회적으로 넓게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즉 서양에서 출발한 생태학적 관심이 동양 전통과 사상에 대한 연구에까지 그 영역을 뻗치고 있다는 것은, 현금의 환경 위기 속에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동서양의 오랜 지혜 속에서 얻어내려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고 동양사상의 우수성을 말해주는 증명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한국 불교는 1,700년에 달하는 학문과 수행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나타난 자취만으로 볼 때는 사회 참여 정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개인적 차원의 기복과 깨달음에만 관심을 갖는, 특히 근현대사를 통해 사회 현실과 정의의 실천 문제에 무관심한 비사회적 몰사회적 종교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나타난 도법스님, 수경스님, 그리고 지율스님으로 대표되는 불교계의 환경 운동은, 이러한 오래된 관념을 불식하였으며, 모처럼 한국 불교계가 자신의 전통을 사회적 관심의 한 가운데로 놓는 계기를 가져왔습니다. 한국불교의 사회 참여적 성격과 또한 한국불교의 역동성을 증명한다는 긍정적 평가도 받았습니다. 더구나 단순히 운동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물질주의와 소비만능주의에 대해 제지를 가하는 반대이념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대안적 문화와 삶의 방법을 제시해주었다고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각 논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각각을 간단히 소개해 보면, 이도흙의 「한국불교의 생명·생태 사상과 그 실천 운동」은 현대 한국 불교계의 환경운동을 도법, 수경 스님을 중심으로 소개하면서 그들의 운동의 뿌리를 멀리 신라시대의 원효나 의상 등의 한국의 철학적 사상 전통에서 찾고 있습니다. 서재영의 「한국선원(禪院)의 생태적 사유와 전통」은 불교 경전과 선 문헌 속에 드러나는 자연관을 소개하고, 또한 한국 사찰의 생태적 삶의 방식과 그 이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종욱

의 「복잡계로서 생태계와 법계」는 복잡계 이론을 빌어 화엄불교의 법계 이론과의 유사성을 주장합니다. 박병기의 「한국불교의 계율정신에 근거한 생태윤리의 모색」은 한국 불교의 계율관련 문헌들을 그 속에서 생태 윤리적 가능성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조은수의 「지울스님의 생태운동과 에코페미니즘」은 천성산 터널 반대운동 등 한국 사회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환경 개발 반대 운동의 주인공 비구니 지울스님의 저항운동을 에코페미니즘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불교계에서 환경과 관련된 담론이 나타난 것은 지난 삼십 년 사이의 일입니다. 이러한 담론들은 그 주체와 진행 공간의 측면에서 불교계와 불교학계로 대별해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를 보충하고 상승시키는 점이 있습니다. 국내 불교계에서는 이제 불교생태학이라는 명칭이 낫설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박경준의 글 「한국의 불교생태학 연구 동향」은 이러한 점을 상세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한국불교의 대응은 불교 전통으로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대안문화 운동으로써 평가받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수록된 논문들이 앞으로의 보다 심화된 연구를 촉발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